

2024. 1. 9.(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1월 8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경제정책실 국제교류과

국제교류과장

조혜정

2133-5260

사진없음

사진있음

쪽수 : 4쪽

도시외교팀장

박경민

2133-5262

오세훈 시장 CES 2024 참석차 미(美) 출장길·서울기업 세일즈·투자유치 나선다

- 1.8.(월)부터 4박 7일 일정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방문해 ‘CES 2024’ 참석
- 이틀간 ‘CES2024’ 서울관 등 방문… MLB국제사업총괄 부사장과 상호협력 논의
- 서울 이노베이션 포럼서 10월 열릴 ‘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’ 중장기 로드맵 발표
- ‘라스베이거스 관광청’ 마케팅 전략 청취… ‘MSG스피어’서 도시매력 강화방안 구상

-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상 최대 정보통신기술(ICT) 박람회 ‘CES 2024’ 참석차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.
-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1.8.(월)부터 4박 7일 일정으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방문, ‘CES 2024’ <서울관>에 참여하는 기업을 격려하고 최신 글로벌 기술 동향을 시찰하는 한편 서울 투자유치와 ‘매력특별시’ 구상에 나선다고 밝혔다.
 - 서울시는 2020년부터 CES에 참가해 <서울관>을 운영하며 서울기업의 투자 유치와 세일즈를 지원해 오고 있다.
- 이번 출장에서 오 시장은 CES 2024 방문뿐 아니라 ▲ ‘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’ 로드맵 발표 ▲ ‘2024 MLB 월드 투어 서울 시리즈’ 개최

관련 MLB 국제사업총괄 부사장 면담 ▲첨단공연시설 ‘MSG 스피어 (Sphere)’ 시찰 등을 통해 서울기업 세일즈를 지원하고 ‘매력도시 서울’을 구체화할 방안에 대해 구상할 예정이다.

<이틀간 ‘CES 2024’ 찾아 서울관 등 방문·MLB 국제사업총괄 부사장 만나 상호협력 논의>

- 오 시장은 4박 일정 중 이틀간(1.9.~10.) ‘CES 2024’를 찾아 서울관을 비롯 국내·외 대기업(삼성, LG, 현대자동차 등) 및 스타트업 전시부스를 차례로 방문하고 ‘서울 이노베이션 포럼 2024’에도 참석한다.

- 먼저 1.9.(화) 오전 11시<현지시간> 국가·스타트업 전시관인 ‘유레카파크(Tech West)’에서 서울바이오허브, 서울AI허브 등 13개 기관 및 서울 소재 스타트업 81개 기업이 참여하는 ‘서울관’ 개관식에 참석한다.
 - ‘서울관’ 개관식에는 오세훈 시장과 게리 샤피로(Gary Shapiro) CTA 회장, 참여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.

- 이어 CES 2024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진출 및 사업화 과정에 겪었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며, 유레카파크 내 일본·네덜란드·프랑스관 등 글로벌 스타트업 전시부스를 순회하며 최신 기술 동향 및 협업 방안도 모색한다.
 - 이번에 ‘서울관’에 참여한 서울 소재 81개 기업 중 18개 사가 CES 2024 ‘혁신상’을 수상했으며, 그중 2개 사는 참여기업 중에서도 1%만 받는 ‘최고혁신상’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.

- 오후에는 MLB 국제사업총괄 부사장을 만나 오는 3월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국내 최초로 열릴 '2024 MLB 월드 투어 서울 시리즈'의 성공적인 개최와 서울시-MLB 간 지속적인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.
- 오는 3.20.(수)~3.21.(목) 고척스카이돔에서 국내 첫 MLB 정규 시즌 공식 개막전(정규시즌 2경기)이 개최될 예정이다.(주최: MLB, 후원: 서울시)
- 같은 날 오후 5시 30분<현지시간>에는 CES에서 열리는 '서울 이노베이션 포럼 2024'에 참석해 오는 10월 코엑스에서 개최될 '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'의 중장기 로드맵을 밝힐 계획이다.
- 1.10.(수)에는 국내외 기업 전시부스가 마련된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(LVCC) CENTRAL·WEST를 둘러보고, 창조산업·약자동행·라이프 스타일 등 서울시민의 미래를 변화시킬 글로벌 최신 산업과 기술을 정책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도 갖는다.

<라스베이거스 관광청 찾아 관광마케팅 전략 청취... 'MSG스피어'서 도시매력 강화방안 구상>

- 1.11.(목)에는 글로벌 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서울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일정을 이어간다.
- 오전에는 CES가 열리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등을 운영 중인 '라스베이거스 관광청'을 방문해 라스베이거스 관광·마케팅 전략을 청취한다.

- 라스베이거스 관광청은 CES가 열리는 ‘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’를 비롯해 대규모 행사시설, 교통수단(모노레일 등)을 소유 및 운영하고 있다. 매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연간 3천9백만 명의 관광객(마이스 5백만 명)이 유입되고 있으며 약 793억 달러(약 104조 원)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고 있다(’22년 라스베이거스 관광청).
- 오후에는 지난해 개관 직후부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첨단공연시설 ‘MSG 스피어’를 시찰, K-컬처 발전과 함께 서울의 관광 경쟁력과 매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구상할 예정이다.
 - 스피어는 약 72,800m²의 대지에 높이 약 112m, 지름 약 160m, 세계 최대 구형(球形) 공연장으로, 건축물 외부 약 5만3천m²로 설치된 18K 초고해상도 스크린을 통해 광고 등 직·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.
- 1.12.(금) 저녁 10시 50분<현지시간> 오 시장은 라스베이거스 출장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다.